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모임**



28_worldview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모임은 교육의 영역에서 신앙과 학문 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현재 매 학기 3회 정도의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박상진 교수님(장신대 기독교교육과)께서 분과장을 맡으시면서 1학기에는 “기독교적 교육의 고민과 과제”, 2학기에는 “통일을 향한 기독교교육”이라는 대주제 아래 중요한 이론가와 현장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며 같이 배우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 분과에는 이 영역에 활동 중인 박사님들과, 학교 교사 등 현장가들,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전공으로 공부 중인 석, 박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 꾸준히 와 주시는 교수님들, 현직 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계십니다. 전자 메일(mailing list)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 실제로 꾸준히 모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임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모임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2학기에는 특별히 이화여대 김정호 교수님(초등교육과)이 장소를 섭외해 주셔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3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주제는 그 시기가 날로 당겨져 오고 있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로 잡았습니다. 9월에는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임창호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끌고 계신 임창호 교수님은 가지고 계신 북한 교과서를 스캔해 오셔서 실제로 북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날은 또한 실제로 탈북한 청년도 함께 참석하여 자신의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북한을 낭만적으로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이러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동분서주 활동 중이신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뒀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현장가의 가슴 저린 고민과 수고들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모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학을 하시다가 기독교통일학회 활동, 통일교육 쪽으로 집중하여 공부하고 활동하고 계신 권성아 박사님께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통일을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같은 방식으로 대주제 아래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를 통해서도 공지하겠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 이종철 연구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